



대학 태권도전공생의 진로발달을 위한 온라인 진로상담의 활용 가능성

남진아¹ · 진승태^{2*}

1.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2. 단국대학교, 교수

요약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태권도전공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와 참여자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스포츠현장에서 온라인 진로상담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방법 연구참여자는 대학 태권도전공생 22명이었다. 온라인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요구조사, 선행연구 고찰,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발하고, 자료는 양적 및 질적 설문지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양적 자료는 기술통계와 대응 t 검증을, 질적 자료는 귀납적 내용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온라인 진로상담 프로그램 전·후로 참여자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인 자기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진로상담 이후 사고의 확장, 진로장벽해소, 진로태도향상, 심리적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온라인 진로상담의 장점으로는 직업정보제공, 높은 현실감, 편안한 진행, 동기강화, 자아성찰 기회가, 단점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의 한계가 나타났다. 온라인 진로상담에 대한 태권도전공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4.67점이었다.

결론 결론적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진로상담은 대학 태권도전공생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추후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온라인 진로상담의 한계점을 보완한다면 스포츠현장 내 학생선수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온라인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대학 태권도전공생, 진로발달, 온라인 진로상담

I. 서론

1970년대부터 추진된 국가주도의 전문스포츠 정책은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사기 진작이라는 사회통합에 기여하였다(Cho & Lee, 2013). 그러나 이와 함께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라는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Hong & Yo, 2007). 그중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는 학생선수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일정수준의 교육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그들의 경력전환 시점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Choi, Lim & Kwon, 2008; Lee & Cho, 2012; Song, Eom & Shin, 2009).

이러한 학생선수의 학력 저하에 따른 은퇴 후 부적응 문

제가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으면서 체육학계에서는 학생선수의 성공적인 경력전환을 위한 학문적 논의(Kang & Kim, 2013; Kim, 2104; Park & Han, 2011)를 전개해오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는 학생선수의 진로상담, 진로교육, 멘토링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Korea Sport[KS], 2021).

학생선수에게 은퇴 이후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은 타 분야에 비해 이른 은퇴 시점을 고려했을 때 선수생활 초기부터 수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선수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Chon & Choi, 2017). 대학 시절은 성인기의 초기 단계로 자신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며, 이때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삶 전체

* jamesjin2002@naver.com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업이다(Baek, 2011; Kim & Kim, 2016). 실제 대학 졸업 이후 자신의 전공과 일치되거나 전공지식의 활용도가 높은 일자리를 선택한 학생일수록 10년 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Hwang, 2019).

한편 국내 체육계학과 대학생 약 5~6만 명 중 태권도 관련 학과 전공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10%로 3년 간 5~6천명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다(Korean Institute of Sport Science[KISS], 2016; Yoo, Kom, Ko & Yim, 2017; Yoo et al., 2018). 이는 한 해 동안 약 천여 명 이상의 태권도전공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진출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졸업 시점에 이들은 태권도 관련 직종이 가진 낮은 사회적 이미지나 금전적 보상 부족, 초과 근무, 불안정한 고용 형태 등의 직업 환경(Kim, Lee & Im, 2010)을 이유로 태권도가 아닌 다른 직종의 종사를 선호하고 있다(Jeong, Jeong & Jang, 2014). 이는 태권도전공생들이 졸업 10년 후 괜찮은 일자리에 안착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태권도전공생들의 성공적인 경력전환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이 대학시절 동안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확인하여 자존감 및 정체성의 재확립을 도울 수 있도록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Chon & Choi, 2017)을 제공해야 한다. 대학 선수들의 진로탐색을 돕기 위한 대안으로는 교내 학생선수들의 진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공과목 개설 및 세분화나 진로상담 등의 교육 및 심리적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Park & Kim, 2019; Jeong et al., 2014).

한편 대학선수들이 자신의 진로설계를 위해 현장감 있는 정보나 직접적인 진로 체험 등의 기회를 원한다(Park & Lim, 2018)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선수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 및 심리적인 지원을 할 때 보다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부합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는 자신의 전공과 적성에 알맞은 직종을 살펴볼 수 있는 취업상담 프로그램(Jeong et al., 2014)과 진로상담(Park & Lim, 2018), 그리고 학교의 선배 및 동기와 함께할 수 있는 멘토링-멘티 프로그램, 진로코칭(Kim & Kim, 2016) 등이 있다.

최근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최소화한 온라인 형태의 의사소통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이 가진 편리성, 경제성, 맞춤형가능성 등의 장점(Park, 2011)을 토대로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물론 기업이나 국가, 이외 공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상호교류가 활

발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온라인 속 교육과 상담의 질이나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Ahn, Chang & Yoon, 2021; Park, 2011; Gerardi, Cukor, Difede, Rizzo & Rothbaum, 2010; Newman, Szkohny, Llera & Prezeworski, 2011).

이러한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 방식을 스포츠현장 내 관계자들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선수들에게 진로탐색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그들이 익숙해하는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즐거운 활동으로 인식시킬 개연성이 있다(Lee, Jung & Bang, 2009). 실제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 스포츠상담사는 동영상 매체에 익숙한 학생선수들이 온라인 상담을 편안하게 느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Kim, 2021). 또한 수업과 훈련, 대회 등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스포츠현장에 시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한 온라인 진로상담은 학생선수들의 참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현장에 온라인 진로상담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1차적 노력으로 대학 태권도전공생에게 온라인을 활용한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온라인 진로상담의 양적 및 질적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대학 태권도전공생들의 진로발달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온라인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기초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실험연구의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용되는데(Lim, Yang, Bae & Yun, 2019) 의도적 표본추출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C지역에 소재한 D대학의 태권도전공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Category	Age	Athlete career	Number
Gender	Male	21.2	7.2	16
	Female	21.3	8.2	6
Major	Gyorugi	21.5	8.7	10
	Demonstration	21.3	8.3	6
	Poomsae	20.7	4.5	6
Total		21.2	7.4	22

밝힌 총 22명을 확보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2세 (± 1.36), 평균 선수경력은 7.4(± 3.15)년이였다(Table 1).

2. 온라인 진로상담 개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온라인 진로상담은 일련의 프로그램 개발 시 주로 사용되는(Shin & Lee, 2011) 요구조사, 선행 연구 고찰,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발하였다. 요구조사에서는 태권도전공생들의 관심직업과 희망하는 진로상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D대학의 태권도전공생 전체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결과 태권도전공생들의 관심직업에는 국내·외 태권도장지도(30명), 스포츠지도사(24명), 공무원(18명) 교육자(17명) 등이 나타났고, 희망하는 진로상담 내용에는 실제 하는 일, 월급, 필요한 자격증, 현재 일을 잘하기 위한 노하우 등을 포함한 직업정보(47문항),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일, 준비하는 동안의 위험요소, 시간관리 방법 등을 포함한 준비과정(28문항), 그리고 현재 일을 하면서 좋은 점, 힘든 점, 만족스러운 점 등을 포함한 직업만족(12문항) 등이 나타났다.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효과를 검증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은퇴 이후 경력전환에 성공한 역할모델을 살펴보는 과정이 대학 선수들의 자존감과 자신감 향상에 기여(Kim, 2020; Chon, Choi, 2018)한다는 사실과 대학선수들이 현실감 높은 정보를 희망(Park & Lim, 2018)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요구조사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할 온라인 진로상담의 주제 및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이후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한 경험이 있는 스포츠심리학 박사 1인과 실험연구의 경험이 있는 체육측정평가 박사 1인에게 자문을 얻어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진로상담 시 역할모델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담사는 경력 전환에 성공한 D대학의 태권도전공 졸업생으로 선정하였으며, 온라인이라는 물리적 거리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빈도의 상호작용(질의) 횟수를 설정하였다(Table 2).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양적, 질적 설문지를 모두 사용하였다. 양적 설문지에는 대학생의 진로발달의 주요 변수로 여겨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Table 2. Online career counseling

Session	Date	Counselor/Job	Program Detail
1	10/21	Y/Domestic and foreign taekwondo gym leader	-Program was progressed by using Zoon which last approximately an hour.
2	10/31	S/Police	
3	11/4	H/Elite coach	-There were discussion regarding job information, job satisfaction, preparation process, and etc.
4	11/9	J/Teacher	

성숙, 그리고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만족도 문항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Betz, Klein & Taylor(1996)가 개발하고, 김동현(2020)이 변안하여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최초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5요인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던 설문지는 요인분석 과정에서 타당도가 결여된 일부 문항이 제거되고 최종 3요인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태도성숙은 이기학, 한종철(1997)이 개발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최초에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의 5요인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던 설문지는 연구진 2인과 측정 전문가 1인, 대학선수 진로상담 전문가 1인, 태권도학과 교수 1인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안면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3인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해 요인 내 핵심문항으로 선별되지 않은 문항을 삭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결정성 요인에서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문항은 5표를 받아 핵심문항으로 남은 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문항은 다른 문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어 1표도 얻지 못해 삭제되었다. 이후 선별된 24문항을 토대로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타당도가 결여된 일부 문항이 삭제되고, 최종 3요인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적 설문지에는 온라인 진로상담의 질적 효과 및 연구 참여자들의 평가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회기별 프로그램 평가지가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이 선행연구(Kim, 2020)를 토대로 문항을 개발한 뒤 진로상담 연구 경험이 있는 스포츠심리학 박사 1인의 의견에 따라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최종 문항은 '오늘 진행한 온라인 진로상

답이 귀하의 진로발달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나요? '오늘 진행한 온라인 진로상담에서 좋았던/안 좋았던 점들은 무엇인가요?'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 설문지는 진로발달과 관련된 22문항과 온라인 진로상담의 질적 효과 및 평가에 관련된 4문항,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5문항을 포함한 총 3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중 진로발달 관련 문항과 만족도 문항은 1점부터 5점까지의 가중치를 주어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였다.

4.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측정도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변별된 요인이 본 연구에서 적합한지 다시 한 번 검증할 때 사용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얻는 각 하위요인들이 동일한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지 검증하는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Song, 2015).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B, C, G, J지역에 소재한 5개 대학 내 태권도전공생 31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중 반응고정화 행동을 보이는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총 27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전반적인 설문 문항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최초 문항에서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값을 기준으로 문항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으며, 요인별 개념신뢰도 확인, AVE값과 상관분석 제공값 비교를 통해 집중타당도 및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Song, 2015). 신뢰도 검증 결과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773-.857, 진로태도성숙은 .811-.872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Table 3).

Table 3. CFA result and reliability

Factor	Items	<i>B</i>	β	<i>S.E</i>	<i>C.R</i>	SMC	개념 신뢰도	AVE	α	Model fit indice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E2	1.000	.754	-	-	.569	.850	.655	.773	$\chi^2=97.328$, CMIM/DF=1.908, RMR=.028, GFI=.942, AGFI=.911, CFI=.970, NFI=.939, IFI=.970, RMSEA=.058
	SE3	.981	.793	.081	12.041***	.630				
	SE4	.756	.661	.074	10.167***	.438				
	GO11	1.000	.654	-	-	.427				
	GO12	1.328	.787	.122	10.848***	.619				
	GO13	1.263	.785	.117	10.831***	.617				
	GO14	1.165	.702	.118	9.908***	.493				
	GO15	1.200	.779	.111	10.763***	.607				
	FU16	1.000	.734	-	-	.538				
	FU17	1.061	.799	.087	12.228***	.639				
FU19	.907	.647	.091	9.972***	.419	.877	.641	.815		
FU20	.967	.716	.088	11.033***	.513					
Career Attitude Maturity	DE1	1.000	.850	-	-	.723	.839	.566	.812	$\chi^2=82.130$, CMIM/DF=2.567, RMR=.046, GFI=.943, AGFI=.902, CFI=.956, NFI=.930, IFI=.956, RMSEA=.076
	DE2	1.093	.936	.064	16.955***	.876				
	DE3	.918	.730	.067	13.716***	.532				
	PU7	1.000	.663	-	-	.401				
	PU8	1.113	.744	.120	9.282***	.553				
	PU9	1.269	.765	.135	9.426***	.586				
	PU10	1.227	.747	.132	9.303***	.557				
	PR17	1.000	.760	-	-	.578				
	PR18	1.127	.794	.103	10.949***	.631				
PR19	1.036	.749	.096	10.749***	.562					

*** $p < .001$

Note. SE=self-evaluation, GO=goal selection, FU=future planning, DE=determination, PU=Purpose, PR=preparation

5.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계획, 연구실행, 결과도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계획단계에서는 진로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그리고 실험연구와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목적 및 방법을 설정하였다. 이후 스포츠심리학 박사 1인과 체육측정평가 박사 1인에게 자문을 얻어 연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진행의 구체적인 시기와 평가방법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연구실행단계에서는 온라인 진로상담을 개발 및 진행하고, 연구에 필요한 양적,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진로상담의 개발을 위해서는 요구조사, 선행연구고찰, 전문가회의를 거쳤다(연구방법 2 참고).

온라인 진로상담의 진행을 위해서는 연구참여자 및 상담을 진행해 줄 상담사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온라인 진로상담의 일정 및 진행방법 등을 전달하였다. 이후 정해진 시간에 zoom을 활용한 온라인 공간 안에서 실시간으로 회기별 주제에 따른 진로상담이 진행되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든 회기에 연구진이 함께 참여하여 회기별 진로상담의 주제 및 초청 상담사를 소개하고, 연구참여자들의 질의를 이끌었다. 자료수집에는 양적, 질적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척도는 4 회기의 온라인 진로상담 프로그램 사전·사후에 1회씩 총 2회 측정하였고, 회기별 프로그램 평가지는 회기가 종료되는 시점마다 1회씩 총 4회 실시하였다. 끝으로 온라인 진로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에 1회 실시하였다.

결과창출단계에서는 수집한 양적, 질적 자료를 타당하고, 신뢰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통계, 대응표본 *t*검증, 귀납적 내용 분석을 사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모든 자료분석 과정에는 연구진과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보했다. 도출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논의는 연구진이 연구진행 과정에서 획득한 경험적 지식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수집한 객관적 정보를 토대로 기술하였으며, 이때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주력하였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양적 자료는 SPSS 21 ver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및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에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진로발달 관련 척도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는 대응표본 *t*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때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수집한 모든 질적 자료는 귀납적 내용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원자료를 살펴보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자료를 취합해 나가면서 의미 있는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후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진과 스포츠심리학 박사 2인의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 범주를 결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온라인 진로상담의 효과

온라인 진로상담이 태권도전공생의 진로발달에 미친 양적 및 질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양적 효과

온라인 진로상담에 참여한 태권도전공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는 사전($M=3.59 \pm .70$)보다 사후($M=4.00 \pm .73$)에 .41점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기평가는 .52점, 목표선택은 .29점, 미래계획은 .41점만큼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기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pre- and post-test result

Factor	Time	<i>M</i>	<i>SD</i>	<i>t</i>	<i>p</i>
SE	pre	3.59	.75	-2.16	.04*
	post	4.11	.68		
GO	pre	3.64	.69	-1.22	.24
	post	3.93	.80		
FU	pre	3.56	.68	-1.88	.74
	post	3.97	.74		

**p*<.05

온라인 진로상담에 참여한 태권도전공생들의 진로태도성숙 점수는 사전 3.40($\pm .87$)에서 사후에 3.67($\pm .89$)로 .27만큼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결정성은 .27, 목적성은 .35, 준비성은 .09만큼 증가하였으며,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Table 5. Career attitude maturity pre- and post-test result

Factor	Time	M	SD	t	p
DE	pre	3.23	1.09	-.68	.50
	post	3.50	1.08		
PU	pre	3.17	.61	-1.80	.09
	post	3.52	.86		
PR	pre	3.80	.73	-.36	.72
	post	3.89	.68		

2) 질적 효과

온라인 진로상담의 질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방형설문 결과 총 84개의 원자료가 수집되어 사고의 확장, 진로장벽해소, 진로태도향상, 심리적 강화의 4가지 일반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Table 6>.

사고의 확장은 온라인 진로상담 이후 태권도전공생들의 사고의 폭과 깊이가 넓어진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진로상담을 통해 참여자들은 온라인 진로상담 이전보다 다양한 진로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고, 사고가 성숙해졌으며,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응답으로는 ‘새로운 직종에 흥미가 생겼다.’, ‘체육교사라는 꿈이 2지망으로 생겼다.’(진로영역확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에 더 신중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다.’, ‘진로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게 되었다.’(사고의 성숙), ‘지도자라는 직업을 만만히 봤는데 어렵고 힘든 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체육교사는 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현실직시) 등이 있었다.

진로장벽해소는 태권도전공생들의 진로선택 및 발달을 방해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온라인 진로상담을 통해 여러 가지 직업 정보를 습득하고, 진로탐색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응답으로는 ‘도장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코치라는 직업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었다.’(직업정보습득), ‘진로에 대해 더 경험하고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진로를 빠르게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진로탐색 필요성인식), ‘고민이 많았는데 조언을 듣고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다.’(진로고민완화) 등이 있었다.

진로태도향상은 태권도전공생들의 진로가 보다 확고해지고, 진로를 위한 준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게 된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온라인 진로상담을 통해 자신의 꿈이나 진로를 더욱 확고하게 결정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결정한 진로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면 되는지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응답으로는 ‘꿈이 뚜렷해졌다.’, ‘나의 진로를 더욱 안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결정성증가), ‘무엇부터 천천히 이루어 나가야 할지 감을 잡게 되었다.’, ‘진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준비성증진) 등이 있었다.

심리적 강화는 태권도전공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심리적 부분이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온라인 진로상담을 받으면서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도전정신과 자신감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된 응답으로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노력이 곧 기회로 찾아온다고 느껴진다.’(노력의 중요성인식), ‘도전정신이 키워진 것 같다.’(도전정신고취),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자신감 향상) 등이 있었다.

Table 6. qualitativ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Raw data(n)	Sub factors(n)	Main factors(n/%)
...(29)	Expansion of career areas(16) Maturity of thought(9) Realization(4)	Enlargement of idea(29/34,5)
...(24)	Acquire job informations(18) Recognizing the need for career exploration(3) Relieve of career worries(3)	Elimination career barriers(24/28,6)
...(18)	Increase determination(9) Promotion of readiness(9)	Enhancement career attitudes(18/21,4)
...(13)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ffort(6) Challenge spirit inspiration(5) Increase confidence(2)	Psychological reinforcement(13/15,5)

Raw data 안의 ‘...’은 원자료의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어 축약하였음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2. 온라인 진로상담에 대한 평가

온라인 진로상담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평가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진행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온라인 진로상담의 장점

온라인 진로상담의 장점을 묻는 개방형설문 결과 총 77개의 원자료가 수집되어 직업정보제공, 높은 현실감, 편안한 진행, 동기강화, 자아성찰 기회의 5가지 일반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Table 7).

직업정보제공은 온라인 진로상담이 태권도전공생들에게 직업과 관련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준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온라인 진로상담을 통해 상담사들이 실제 하는 일이나 월급, 지원 시 필요로 하는 자격증 및 경력, 그리고 각 직업의 장단점 미리 접해볼 수 있었던 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된 응답으로는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 직업의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직업정보), ‘이 직업의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었다.’, ‘경찰이라는 직업의 힘든 점과 좋은 점을 알 수 있었다.’(직업 장단점) 등이 있었다.

높은 현실감은 태권도전공생들이 온라인 진로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사안들을 간접경험하고, 진로상담 내용에 크게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상담사들의 진로준비 과정을 간접경험하고, 학교나 인터넷에서는 접할 수 없는 그들의 현장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상담사들이 같은 전공 출신의 선배님들이라 진로상담 내용이 더욱 와 닿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된 응답으로는 ‘내가 몰랐던 경찰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 수 있었다.’(진로준비 간접경험), ‘여러 가지 노하우를 자세히 들 수 있었다.’, ‘인터넷에서는 볼 수 없는 고급정보들을 배웠다.’(현장 노하우), ‘같은 선수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더 귀에 잘 들어왔다.’(높은 공감대) 등이 있었다.

편안한 진행은 태권도전공생들에게 온라인 진로상담의 내용이나 진행방식이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진 점과 온라인 공간이 가진 편리성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상담사들이 적절한 예시와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주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밖에 자유로운 질의 기회, 발표자료 활용 등이 온라인으로 진로상담을 듣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시공간의 제약이 적다는 사실도 장점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된 응답으로는 ‘아주 적절한 예시와 경험담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다.’(눈높이 소통),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았다.’(자유로운 질의기회), ‘직접 ppt를 준비해주셔서 보기가 좋았다’(발표자료사용), ‘어디서든 진로상담을 들을 수 있는 점이 좋았다.’(자유로운 시공간) 등이 있었다.

동기강화는 태권도전공생들이 온라인 진로상담을 들으며 자신의 진로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온라인 진로상담을 통해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해야겠다는 정신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무장될 수 있었던 점을 온라인 진로상담의 장점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된 응답으로는 ‘뭐든 도

Table 7. advantages or online career counseling

Raw data(n)	Sub-theme(n)	Main-theme(n/%)
...(24)	Job information(16) Job pros and cons(8)	Provide job information(24/31,2)
...(19)	Career preparation indirect experience(11) Field know-how(5) High bond of sympathy(3)	High sense of assimilate(19/24,7)
...(18)	Effective communication(9) Free question opportunity(3) Using presentation(3) Free space and time(3)	Agreeable progress(18/23,4)
...(9)	Challenge spirit formation(5) Confidence formation(4)	Motivation reinforcement(9/11,7)
...(7)	Self-Reflection time(4) human maturity(3)	Self-Reflection opportunity(7/9,1)

Raw data 안의 ‘...’은 원자료의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어 축약하였음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나도 항상 포기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도전정신 형성), ‘자신 없던 부분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자신감이 생겼다.’, ‘나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자신감 형성) 등이 있었다.

자아성찰 기회는 태권도전공생들이 온라인 진로상담을 듣고 자신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상담자들의 삶을 대리경험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상담사들의 진신어린 조언을 들으면서 한층 성숙한 생각을 하게 된 점을 좋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응답으로는 ‘살아가는 동안 나 자신을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자아성찰시간), ‘지금 대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실천하고 경험하고 실패도 해보면서 그로 인해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인간적 성숙) 등이 있었다.

2) 온라인 진로상담의 단점

온라인 진로상담의 단점을 묻는 개방형설문 결과 총 74 개의 원자료가 수집되어 온라인 시스템의 한계라는 한 가지 일반영역으로 범주화되었고, 나머지는 없음으로 나타났다(Table 8).

온라인 시스템의 한계는 온라인이라는 비대면 공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태권도전공생들은 온라인 시스템 상 원활하지 못한 연결 상태나 주변 소음으로 인해 상담사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점과 상담사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없는 사실을 온라인 진로상담의 단점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된 응답으로는 ‘온라인이다 보니 조금씩 끊겨서 잘 안 들린 점’, ‘주변 소음으로 말을 자세히 잘 못 들었다.’(불편한 음질), ‘비대면으로 해서 아쉬웠다.’, ‘직접 만나서 듣고 싶다.’(비대면 진행) 등이 있었다.

3) 온라인 진로상담에 대한 만족도

온라인 진로상담에 대한 태권도전공생들의 만족도를 알

아보기 위해 4회기의 온라인 진로상담 이후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설문 진행 결과 그들의 평균 만족도는 평균 4.67 점(±.56)으로 나타났다. 성별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4.69(±.48), 여학생 4.62(±.74)으로 유사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4.62(±.74), 2학년이 5.00(±.00), 3학년이 4.75(±.46), 4학년이 4.25(±.50)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스포츠현장에 온라인 진로상담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볼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에 대해 선행연구와 연구진의 경험지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진행한 온라인 진로상담의 양적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진로상담 이후 태권도전공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사전 3.59점에서 사후 4.00점으로, 진로태도성숙은 3.40점에서 3.67점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온라인 진로상담이 태권도전공생들의 진로발달에 큰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온라인 진로상담이 전체 연구참여자들의 지속적인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흥미와 동기를 충족시켜줄 필요성이 있는데(Lim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전공생들이 가진 겨루기, 품새, 시범 등의 주 종목별 진로 방향성의 차이와 개인별 희망하는 직업군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던 점이 한계로 남는다. 이지는, 정윤경, 나현미, 임해경(2019)연구에서 대학 내 계열별(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공해야함을 언급하였는데, 상황이 허락된다면 이러한 계열별 특성을 더욱 세분화한 접근이 현장에서 높은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선수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 수업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

Table 8. shortcomings of online career counseling

Raw data(n)	Sub-theme(n)	Main-theme(n/%)
...(21)	UncomforTable sound quality(12) unable to meet(9)	Limitations of Online system(21/28.4)
...(53)	no downside(53/71.6)	

Raw data 안의 ‘...’은 원자료의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어 축약하였음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스포츠현장에서 학생선수들은 학업과 훈련을 병행해야 하는 제도적 환경 안에서 피로감을 토로하고 있다(Shin, Kim & Oh, 2011). 이러한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 선수에게 주어진 기존의 수업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실제로 대학선수의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10주가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을 때 목표한 심리기술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 효과의 원인으로 수업시간 활용을 통한 선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실천력 강화를 꼽고 있다(Shin & Lee, 2011; Lee, Shin & Saijo, 2008).

둘째, 본 연구에서 진행한 온라인 진로상담은 태권도전공생들의 진로발달에 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진로상담은 참여자들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참여자들이 가진 여러 가지 진로장벽을 해소시켜주었으며, 참여자들의 진로태도 및 심리적인 부분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질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폭 넓게 관찰하는데 사용되는 방법(Kim & Park, 2020)으로 여러 가지 외생변수에 영향을 받는 양적 효과의 결과를 뒷받침하는데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질적 효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진로상담이 연구참여자들의 진로준비에 대한 의도나 인식 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의도나 인식은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Kim, Kim, Kim, Han & Song, 2004) 개인의 의도는 실제 행동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시간 등을 설정하는 실행계획 및 실제 행동에 중요하게 작용한다(Kim & Cheon, 2019). 또한 자신의 진로준비에 대한 참여 의도나 노력투입 계획 등을 설명하는 진로의의도 역시 대학 선수의 실질적인 진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Park & Kim, 2019) 온라인 진로상담이 태권도전공생들의 진로에 대한 의도 및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추후 그들의 진로준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진행한 온라인 진로상담은 직업정보 제공, 높은 현실감, 편안한 진행, 동기강화, 자아성찰 기회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권도전공생들이 온라인 진로상담을 통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 정보와 간접경험을 통한 자신감 증진 및 자기성찰 시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장점들은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자신감 부족 등의 진로장벽을

(Chung, 2019; Hwang, Lee & Park, 2005) 상쇄시켜줄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경험이 없는 과제에 대해 다른 사람의 수행이나 결과를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하는 것은 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Bandura, 1997: 한국스포츠심리학회, 2005에서 재인용)로써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Kim & Kim, 2016; Kim, 2020). 또한 대학생들은 진로와 관련하여 실무적 내용을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크게 선호(Lee, et al., 2019)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실제 직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들이 현실적인 이야기와 터득한 현장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이에 추후 온라인을 활용한 진로상담에 선수 출신의 롤모델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진행한 온라인 진로상담은 온라인 시스템의 한계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연결 상태나 상담사 및 다른 참여자들의 주변 소음으로 인해 음질이 끊기거나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등의 불편함과 실제로 대면 할 수 없다는 공간의 제한 등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 및 상담 안에서 이러한 접속 오류로 인한 영상 및 음성의 끊김 등의 한계점은 꾸준히 드러나고 있다(Kim, 2021). 이러한 접속 불량으로 상담의 흐름이나 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신뢰감 형성에 어려움이 발생(Kho & Nam, 2007; Sim & Lee, 2003)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상담사에게 사용할 온라인 매체의 조작 방법이나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상담내용을 가시화한 발표자료준비 및 사전 공유를 통해 진로상담 중 음질의 불편함으로 유발될 수 있는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태권도전공생들은 상담사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드러냈는데 이는 온라인 공간이 오프라인 공간에서보다 신뢰성이나 공감성 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사실과(Park, 2011) 관련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추후 스포츠현장의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효과적인 온라인 진로상담을 많은 학생선수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담과정에서 중요한 신뢰감 형성을 위한 대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진행된 온라인 진로상담에 대한 태권도전공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회기별 프로그램 평가지에

서 온라인 진로상담의 단점에 대한 응답이 70% 이상 '없음'으로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볼 때 스포츠현장에서 선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진로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온라인 프로그램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등의 방법들을 모색한다면 추후 스포츠현장에 보다 체계성을 갖춘 온라인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되기를 기대해본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온라인 진로상담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질적으로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진로상담 전·후로 태권도전공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점수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반면 온라인 진로상담 이후 태권도전공생들은 진로와 관련한 사고의 폭과 깊이가 확장되고,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진로장벽들이 해소되었으며, 진로에 대한 태도 및 심리적인 부분이 고무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온라인 진로상담은 대학 태권도전공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현실감과 편안한 진행 방식으로 상담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줌과 동시에 참여자들의 진로준비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키고 자아성찰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원활하지 않은 연결정도나 주변 소음으로 인해 음질이 불편하게 들리거나 직접 대면할 수 없다는 온라인 시스템의 한계점이 단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에서 진행된 온라인 진로상담에 대한 대학 태권도생들의 만족도는 평균 4.67점으로 매우 만족에 가까웠으며, 회기별 온라인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단점을 묻는 개방형 설문 응답의 70% 이상이 '없음'으로 나타났다.

2.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남긴다.

첫째, 학생선수들의 진로발달을 위한 검증된 온라인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스포츠현장 내 온라인 진로상담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할 온라인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그보다는 온라인을 활용한 진로상담의 진행 및 절차에 집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온라인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상담내용이나 방법 등이 엄격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한계점 및 참여자들의 질적 평가를 기반으로 질적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검증된 온라인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보기를 기대한다.

둘째, 연구에 사용할 측정도구를 세심하게 선별 및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실험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 중의 적절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느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실 최초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진로미결정 3가지의 척도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집단과 연구참여자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 태권도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이 세 가지 척도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 동안 진로미결정 척도는 적절한 문항이 거의 남지 않아 제외시키고, 남은 두 가지 척도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두 가지 척도 안에서도 너무 많은 문항이 삭제되어 본 연구에 적합한 척도였을지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참여자에게 적합한 측정도구를 보다 세심하게 선별하여 양적 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뒤따라기를 기대해본다.

셋째, 스포츠현장의 학생선수들을 위한 진로상담이 일련의 교과과정으로 개편될 수 있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학생선수들이 일찍부터 겪는 이중역할은 그들에게 신체 및 심리적인 부담과 함께 학교생활 적응이나 선수로서의 재능 발달 등에 많은 어려움을 파생시키고 있다. 때문에 어떠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더라도 현재 주어진 훈련 및 학업 시간 이외에 또 다른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여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학생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수업시간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장벽을 해소하여 그들의 지속적인 진로 탐색 및 실천의 시간을 증가시키고, 프로그램의 효과 또한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Ahn, H. S., Chang, D. S., Yoon, J. Y. (2021). Application and effect of the non-face-to-face CAP+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CGCP) for the career transition of retired elite female athletes.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32(1), 47-65.
- Baek, S. I. (2011). The effects of perceived employment barrier of university seniors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on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2), 91-109.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h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Cho, N. Y., Lee, Y. K. (2013). Exploring alternative strategies on the basic concepts and realities of government-fostered student athletics policies. *The Korean Society of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19(3), 151-164.
- Choi, H. J., Lim, S. W., Kwon, K. N. (2008). The school days adaptation process of high school drop-out athletes.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21(3), 609-624.
- Chon, T. J., Choi, J. S. (2017). Development of a career transition program for college student-athlet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2(3), 27-38.
- Chung, J. E. (2019).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velopment of college athlet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2), 451-473.
- Gerardi, M., Cukor, J., Difede, J., Rizzo, A, Rothbaum, B. O. (2010).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other anxiety disorders. *Current Psychiatry Reports*, 12(4), 298-305.
- Hong, D. K., Yo, T. H. (2007). Student athletes in terms of human rights: An educational dicourse.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4(4), 131-154.
- Hwang, M. H., Lee, A. R., Park, E. H. (200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 career barriers scale for male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16(2), 125-59.
- Hwang, S. S. (2019). If you want to get 'decent Jobs' 10 years after graduat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Issue Brief*, 171.
- Jeong, K. H., Jeong, R. H., Jang, K. (2014). Career decision for students majoring in taekwondo after graduation. *Sports Science*, 31(2), 147-154.
- Kang, J. W., Kim, Y. R. (2013). A study on policy direction for elite athletes career support in korea through the australian athlete career and education program review.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8(1), 263-284.
- Kho, D. G., Nam, Y. H. (2007). Analysis effects for cyber group consultation using video based system.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7(4), 213-223.
- Kim, B. R., Cheon, S. H.(2019). Relationship between collegiate student exercise intention and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The mediating role of action and coping planning.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8(1), 217-228.
- Kim, D. H. (2020).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for 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university athletes' career development*(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Seoul.
- Kim, D. H. (2021). Exploring the online counseling experience of sports psychology counselor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9(1), 1007-1018.
- Kim, J. H., Lee, J. B., Im, I. H. (2010). Negative recognition reconsideration of taekwon-dojang instructor.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Philosophy of Sport*, 18(2), 99-109.
- Kim, J. U., Kim, H. H. (2016).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level,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2), 741-766.
- Kim, K. W. (2014). Policy suggestions for athlete's career development and transition: A case of german support program for athlete's dual career. *The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 Certified Exercise Professionals*, 16(4), 101-113.
- Kim, S. O., Kim, B. J., Kim, K. W., Han, M. W., Song, W. Y. (2004). *Sport psychology*. Seoul: Daehanmedia.
- Kim, Y. S., Park, I. C. (2020). The application of strength-based positive psychology program for elite archers.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31(3), 534-546.
- Korea Sport(2021). E-career support center. March 15, 2021, from <https://welfare.sports.or.kr/job/index.do>
- Korean Institute of Sport Science(2016). *2016 Korea sports indicators*. Seoul: Korean Institute of Sport Science.
- Lee, J. E., Jeong, Y. K., Rha, H. M., Lim, H. K. (2019). A study on awareness and demand analysis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education for improvement of university career education.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9(1), 55-75.
- Lee, J. Y., Jung, S. Y., Bang, H. J. (2009). The type of long-term clients in cyber career counselling and the effective methodolog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4), 2169-2186.
- Lee, K. H., Han, J. C. (1997). A tool for validating career attitude measur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8, 219-255.

- Lee, S. B., Cho, M. H. (2012). A study on social adaptation of judo athletes post retirement. *Journal of Sport Science*, 24, 89-105.
- Lee, W. Y., Shin, J. T., Saijo, O. (2008). The competitive state anxiety and internal motivation of male collegiate soccer players by psychological training program in class period.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19(3), 128-139.
- Lim, T. H., Yang, J. Y., Bae, J. S., Yun, M. S. (2019). Verifying the worksheets for improving life skills and resilience of collegiate taekwondo athletes.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30(4), 700-719.
- Newman, M. G., Szkodny, L. E., Llera, S. J., Prezeworski, A. (2011). A review of technology-assisted self-help and minimal contact therapies for anxiety and depression: Is human contact necessary for therapeutic efficacy?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 89-103.
- Park, G. H. (2011). *The influence of college educational service quality on academic motivation and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 Park, J. W., Han, S. H. (2011). A comparative study of elite athlete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transition support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united kingdom: Drawing policy suggestions and alternatives.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2(1), 1739-1754.
- Park, J. W., Lim, J. S. (2018). Career and conflict of college taekwondo major.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72, 341-352.
- Park, S. U., Kim, H. Y.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tention and career behavior of college taekwondo students applying theory of planned behavior.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10(4), 129-146.
- Shin, C. H., Kim, D. J., Oh, J. K. (2011). College athletes' perception on athlete study support program.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8(3), 39-54.
- Shin, J. T., Lee, H. W. (2011). The effects of stress coping program for university taekwondo students by utilizing.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2(4), 2371-2382.
- Sim, H. S., Lee, H. J. (2003). An analysis of differences in self-talk and hypotheses formulation in cyber counseling according to counselor's experienc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1), 1-16.
- Song, J. J. (2013). *SPSS/AMOS Analysis Method*. Gyeonggi: 21cbook.
- Song, Y. G., Eom, H. J., Shin, M. J. (2010). Understanding for learning experiences on athlete students': With an emphasis on the right to learn.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7(1), 89-109.
- Yoo, E. D., Shin, S. Y., Park, S. Y., Lee, D. C., Jeon, J. Y., Kim, J. Y. (2018). *2018 Korea Sports Indicators*. Seoul: Korean Institute of Sport Science.
- Yoo, E. H., Kim, M. S., Ko, K. J., Yim, G. G. (2017). *2017 Korea Sports Indicators*. Seoul: Korean Institute of Sport Science.

Possibility of Using Online Career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of Taekwondo Major Students

Nam, Jin-Ah¹ · Chin, Seung-Tae²

1. Dankook University, Professor 2. Dankook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n online career counseling program for taekwondo majors in universities and to explo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and the possibility of using online career counseling at sports sites based on the evaluation of participants.

Method The study involved 22 taekwondo major students in a university. The online career counseling program was developed through a demand surveys from participants, prior research considerations, expert meetings, and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questionnaires. Quant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ired t-test, and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inductive content analysis.

Results Before and after the online career counseling program,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self-evaluation of the participants. After online career counseling, participants also noted that there were positive effects such as enlargement of idea, elimination career barriers, enhancement career attitudes, and psychology reinforcement. Advantages of online career counseling include provide job information, high sense of assimilate, agreeable progress, motivation reinforcement, and self-reflection opportunity, while shortcomings of limitations of online system have been identified. The overall satisfaction of taekwondo major students with online career counseling was 4.67 points.

Conclusion In conclusion, career counseling using online can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taekwondo majors in universities. If the limitations of online career counseling shown in this study are revised and supplemented,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more effective online career counseling programs to student athletes.

Keywords Taekwondo major students, Career development, Online career counseling

논문투고일: 2021.04.30.

논문심사일: 2021.06.07.

심사완료일: 2021.06.23.

논문발간일: 2021.06.30.

